새로운 생각 키우기
올바른 마음 가꾸기
튼튼한 체력 기르기

대성 가정 통신

2019 – 79 호
전화 : 031-584-0621
FAX : 031-584-9226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 평등 교육 1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양성평등 의식은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자와 남자의 차별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손자녀의 성 차별적 가치와 태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 · 할머니들의 손자 · 손녀 지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말해 보면 어때요.	생각 나누기
색깔	“어머, 딸인가 보네. 빨간색 옷을 입었네.”	“빨간색 옷이 참 잘 어울리네.”	색깔로 남녀 구별 짓지 않기 장난감과 용품의 선택에 큰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질	“백 말띠라 그런가, 여자애가 드세.” “아이고 힘도 세네.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 일 텐데.”	“우리 손녀는 활발한게 장점이야.” “우리 손녀가 아주 튼튼하구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감정	“사내자식이 울기는 왜 울어”	“많이 아팠겠구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아픔,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인정하기
직업	“우리 손녀는 여자 직업으로 좋은 00가 되면 좋겠어.”	“아들이든 딸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죠.”	남자직업과 여자직업으로 구분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기
고유성	“사내아이가 인형을 들고 다니네.” “남자애가 밖에 나가서 공을 차고 놀아야지.”	“손자가 인형을 좋아하니까 다음에는 인형을 선물해야지.” “손자가 좋아하는 소꿉놀이를 같이 해 줘야지.”	아이들이 놀잇감을 선택할 때 성별에 맞는지 판단하지 말고 아이의 선택을 격려하기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인정하고 아이의 고유성에 맞추기
놀이	“남자아이가 왜 이렇게 여자애들이랑 노는지...”	“우리 손자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구나.”	여자끼리, 남자끼리 구분하기 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 아이의 각자 의견, 취향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지도하기

뒷면계속 ☞

남자와 여자 모두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요.



'남자는 울지 않아야 하고 씩씩해야 한다'는 성고정관념적 언어보다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남자놀이 여자놀이 구분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놀잇감을 선택할 때 성별에 맞는지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자신이 좋하는 놀잇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구분하지 않아요.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는 ~~해야 한다'라는 원칙은 없답니다. 손자녀와 무심코 대화한 것이,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고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성편견적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답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인정하는 친구입니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구분하기 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 각자의 의견, 취향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지도해 주세요.

<출처: 서울시청 성교육 자료>

2019년 5월 27일

대 성 초 등 학 교 장